

정읍시,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 나선다

2022년도 강소농 교육생 모집

2월 신청, 3월~11월 교육

SNS 직거래·우수 선도 농가 견학

정읍시가 농가 경영·개선·실천 교육을 통해 농업인 자율·자립 역량강화에 나선다. 정읍시는 경영 규모는 작으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규 농가는 오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소농 교육 신청 대상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규모의 농업경영체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개선 교육과 경영기록장 작성, 경영 실습 등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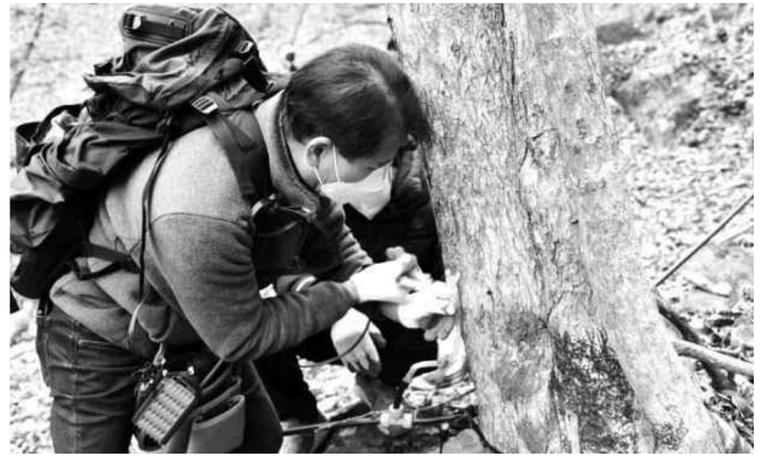
강소농으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과 심화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에 추진되는 후속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한다. 교육 내용은 강소농의 이해, SNS 직거래 마케팅, 중장기 계획수립, 우수 선도 농가 현장 견학 등이다.

교육 내용은 강소농의 이해, SNS 직거래 마케팅, 중장기 계획수립, 우수 선도 농가 현장 견학 등이다.

강소농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은 자율 모임체를 운영하며 영농정보 교류와 경영컨설팅, 홍보 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업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 실습과 현장 견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지리산남원뱀사골고로쇠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이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를 위해 채취관을 연결하고 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

지난해보다 2주일 정도 빨라

남원 지리산의 특산품인 고로쇠의 수액 채취가 시작됐다.

남원시는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의 수액 채취가 지난해보다 2주일 정도 빨라졌다고 2일 밝혔다.

고로쇠는 빼에 이롭다는 뜻의 한자어 '골리수(骨利樹)'에서 유래했으며 옛부터 약수로 여길 만큼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는 해발 600m 이상인 뱀

사골 인근에 서식하는 지름 20cm 이상의 고로쇠나무에서 채취된다.

뱀사골 고로쇠는 해풍이 미치지 않고 일교차가 큰 지역 특성 덕분에 당도가 높으며 깨끗하고 담백한 맛이 전국 최고 품질로 인정받는다.

정기주 지리산남원뱀사골고로쇠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상기온으로 고로쇠 채취의 시기가 빨라졌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던 터라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뱀사골 고로쇠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힘쓰고 있는 만큼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KTX 익산역 중앙로 경관조명...어두운 거리 환해졌다

건물주들과 야간경관협정도

KTX 익산역 앞 옛 도심인 중앙로의 달라진 밤거리 경관이 방문객과 시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는 중앙로 일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야간경관협정 사업을 추진해 따뜻하고 환한 거리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야간경관협정 사업은 건축물과 보행공간의 적정 조도 확보를 위해 상가 건축물에 조명시설을 설치(기존 간판 조명 포함)하고 일정 시간까지 점등할 것을 약정하면 익산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중앙로 상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야간경관을 개선해 유동 인구를 늘리고 지역 상권과 옛 도시를 활성화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밤거리 경관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새롭게 단장한 익산역 앞 중앙로.

순창군, 초·중학교 입학생 국가 필수 예방접종 독려

순창군이 지역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올해 입학할 앞둔 초·중학생의 예방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미 접종자를 대상으로 입학 전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초등학교 입학생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등 4종을 접종해야 한다.

또 중학교 입학생은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등이 필수 접종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국가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 후 누락된 접종이



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료관련 직업 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있으면 입학 전까지 접종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영근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은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학생은 감염병 전파에 취약해 안전한 단체

생활을 하려면 빠진 접종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군산시, 686세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국비 29억원 등 58억원 투입

군산시가 58억원을 들여 시내권 일원 주택과 상가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29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국비 등을 포함한 58억원 들어 동지역 약 686세대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지원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2월에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체 설비 용량은 3MW 정도이며,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 시 연간 5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2년 안에 자부담금 회수가 가능하며, 향후 20년 이상 전기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해 시민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서남부권 45억원과 2021년 동부권 48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진행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사업 운영

주민들 정신건강 상담·검진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마음안심버스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스트레스 측정, 우울증 상담 등 정신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내부설계 되어 있으며 ▲정신건강전문가의 심리상담 ▲소집단 교육 ▲안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김원철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은 "마을 건강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